

# 순천시, 행정+메타버스... 대한민국 표준 만든다

## '메타버스 순천' 기본계획 수립 국제정원박람회 홍보관 운영도

순천시가 행정에 '메타버스'를 전격 도입한다.

순천시는 지난해 메타버스 순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메타버스서비스 구축을 위한 8개 분야의 과제와 추진 로드맵이 담겼다.

첫 번째 구축되는 메타버스 환경은 4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다. 시는 '2023정원박람회 메타버스 홍보관'을 구

축해 운영한다.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에서 박람회 콘텐츠인 BIG CHANGE 10 (그린아일랜드·가든스테이·어싱길 등)을 미리 만나볼 수 있으며 캐릭터인 루미오와 똥리엇이 알려주는 정원설명, 행사안내 등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순천시는 인공지능(AI)을 융합한 '디지털 휴먼 시장'도 제작한다. 디지털 휴먼 시장은 실제 '순천시장'을 대신해 시 누리집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서 다양한 시장 소식이나 시책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메타버스 붐 조성을 위한 컨퍼런스와 이벤트도 연다. '메타버스 순천' 선포식을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메타버스 인식확산을 위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한다. 시민과 MZ세대를 대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 이해, 활용과정과 게임, 소통 등 메타버스 콘텐츠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메타버스 기반 순천형 일자리 통합 플랫폼도 연차적으로 구축한다. 연말 출시 예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합 플랫폼을 활용하여 구축한다. 구인·구직관을 비롯하여 △면접관 △소통관 △청년관 △기업홍보관 등의 콘텐츠로 구성된다.

시는 구인·구직 서비스부터 면접, 교육까지 메타버스 기술을 통한 윈스톱 서비스를 구현, 순천형 일자리 통합플랫폼을 완성할 방침이다.

순천시 디지털정책과 관계자는 "경제, 교육, 노동, 보건복지, 정주환경 등 메타버스 기반 행정을 펼쳐 대한민국 표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시민들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정보통신과를 디지털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메타버스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 '국립호국원 장흥군 설치' 촉구 장흥군의회, 건의안 채택

장흥군의회(의장 왕운재)는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립호국원 전남 장흥군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7명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군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전국 8개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전남도만 국립호국원이 없는 유일한 곳이며 광주·전남 지역 내 연고를 둔 보훈대상자가 타지가 아닌 고향 지역에 안장될 수 있도록 장흥군에 국립호국원 설치를 건의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백광철 의원은 "장흥군은 도내 1시간 이내 접근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국가공공자 유가족이 느끼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 최적지"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유가족 1만 7400명(54%)을 안장하고 있는 임실 호국원의 경우 오는 2024년 만장이 예상돼 신규 호국원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흥=김전환 기자

## 모바일 헬스케어참여자 모집 구례군 보건의료원

구례군보건의료원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60명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검진 후 최종 참여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자는 20~60세 구례군민 중에서 5가지 건강위험 요인(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중 1개 이상 보유한 자이다. 단,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진단받거나 치료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우수 참여자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형진 구례군보건의료원장은 "모바일 헬스케어를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061-780-2051)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김상현 기자

## 장흥군 '산불 제로화' 캠페인 현수막 게첨·리플릿 배부 등



장흥군은 '2023년 산불예방활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산불예방활동 캠페인은 장흥군청 산림휴양과 직원과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이 합동으로 추진했다.

장흥읍 군민회관 앞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 50명의 참여인원은 피켓을 활용한 도보 홍보에 나섰다.

산불방지 현수막 게첨과 리플릿 배부 등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최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산림청장, 소방청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이 발표되는 등 범국민적으로 산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재산과 인명을 위협하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며 "산불예방활동 캠페인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전환 기자



## 장흥 대덕청소년문화의집 '사이언트 안 토탈공예' 운영

장흥군 대덕청소년문화의집은 최근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사이언트 안 토탈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토탈공예 강사는 사이언트 안에 대해 소개하고 몽치 실을 가지고 한줄 한줄 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함께 만들었다. 장흥군 제공

## 김화선 '외갓집 뒤안' 구례 압화대전 종합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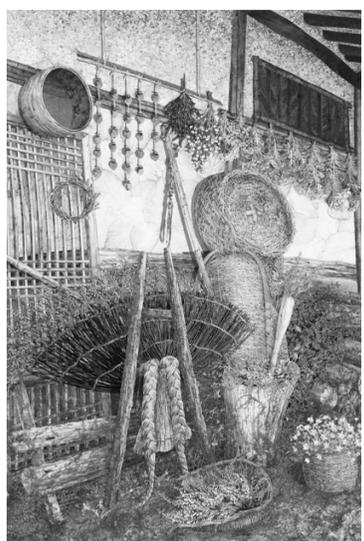
### 출품작 348점 중 90점 선정 온라인투표... 4월21일 시상

구례군은 제22회 대한민국압화대전 심사 결과 김화선 작가의 '외갓집 뒤안'이 종합 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례군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압화대전은 국내전(압화·보존화), 국외전 2가지 분야 3가지 부문으로 12개국 348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압화분야 국내전은 종합 대상 1점, 대상 4점, 최우수상 6점, 우수상 15점, 장려상 20점, 특선 45점으로 총 90점의 작품이 선정됐다.

국외전은 대상에 중국(곽려근·맹번



김화선 작 '외갓집 뒤안'

옥)의 '사슴의 울음소리'를 비롯해 40점의 우수한 작품들이 선정됐다.

보존화 분야 대상은 김현화 작가의 '여름 숲의 길목'이 선정됐으며 최우수, 우수, 장려, 특선 등 20점이 선정됐다.

심사는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해 진행했으며 공정성 강화를 위해 종합 대상은 국민 온라인 투표로 선정했다.

압화대전 심사 관계자는 "화면의 구성과 예술적인 표현을 잘 살린 우수한 작품이 많아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며 "작가들의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 시상식은 오는 4월 21일에 열리며 수상 작품은 17일부터 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에 연중 전시된다.

구례=김상현 기자

## 광양시, 매화축제 '바가지요금' 강력 단속

###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광양시는 제22회 매화축제를 맞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식품위생업소 바가지요금을 강력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매화축제장 바가지요금 근절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바가지요금 근절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무신고 식품 판매 행위를 단속한다.

식품위생과를 비롯해 지역경제과, 관공과, 다압면 등 4개 부서가 참여하는 합

동점검이며 광양매화축제장 일원 식품위생업소 대상이다.

단속은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 미표시 및 표시 요금 초과 징수 행위 △무신고 식품 판매 및 푸드트럭 지도단속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의 준수사항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위생복 및 위생모 착용) △부패·변질이 쉬운 식품 냉동·냉장 시설에 보관 관리 여부 △식품 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 다.

시는 축제 기간 바가지요금 근절 민원 상황실을 운영해 부당요금 신고를 접수하고 현지 확인 후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박순기 광양시 식품위생과장은 "광양매화축제 주변 식당, 한시적 영업신고를 득한 계절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등 관계자는 상거래 질서 지켜기에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안전한 도시 조성 및 감동행정을 위해 광양매화축제장 일원 식품접객업에 대한 식중독 발생 사전 차단 을 위한 지도·홍보에 힘쓰고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 구례군, 노인일자리 안전교육

구례군은 2023년 노인 일자리 사업 안전교육을 산동면 참여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산동면을 시작으로 광의면·마산면에 교육강사를 지원하고 4월 용방면·간전면·토지면, 5월 구례읍, 문척면 참여자들에게 소양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올해 5시간 필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군에서는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전문강사를 초빙,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990명 어르신에게 노인 일자리의 이해, 노인일자리 소양교육, 안전예방기본교육 등 교육을 제공한다. 구례=김상현 기자

## 교육환경개선사업 성과 광양시, 대입 명문대 진학 등

광양시가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71억원 예산을 투입한 결과 2023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지역 고교가 수도권 명문대 학과 특수, 의과 계열에 합격자를 배출했다. 명문대 진학율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13일 광양시에 따르면 인문계 고교생 1074명 중 164명이 '중앙일보 선정 2022년 대학평가 상위대학 10개교'에 합격했다.

카이스트, 포스텍, 경찰대, 교육대학 등 특수대학에 25명, 의대, 치의대, 한의대, 약대 등 의과 계열에 31명이 합격했다.

이는 서울대 11명, 연세대(서울) 14명, 성균관대 32명, 한양대(서울) 35명, 고려대(서울) 15명 등으로 상위 10개 대학과 특수대학, 의과 계열을 살펴봤을 때 2022년 154명(13.3%)에서 2023년 220명(20.5%)으로 상승한 수치이다.

이번 성과는 광양시가 지난 2002년 전국 최초 교육환경개선 조례를 제정한 이래로 교육환경개선사업, 무상급식 등 매년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온 결과다.

중학교 졸업생의 관내 고교 진학비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 중학교 졸업생 1558명 중 83.9%가 지역 내 고교에 진학했다. 광양=안영준 기자